

생각에 머문 안전 손끝으로 실천하자

JINRO 주식회사 진로(이천공장)

늦더위가 끝나갈 무렵, 복잡한 도시를 탈출하기 위한 막바지 휴가 행렬에 끼어 영동고속도로를 달린다. 어렸을 적 하얀 크림빵을 먹을 때, 크림 먹기가 아까워 맛 없는 빵만 먹고 난 후, 마침내 달콤한 크림을 한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기쁨처럼 아껴둔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오늘은 오랫동안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준 소주의 고향 경기도 이천, 주식회사 진로를 찾았다.

■ 세계로 뻗어나가는 진로

두꺼비를 연상하면 침이 꿀꺽 넘어가고 ‘소주 한잔’이 절로 생각나게 하는 기업, 주식회사 진로. 두꺼비 상표 진로소주는 우리 서민과 애환을 함께하며 성장한 대표적인 장수 상품이다. 진로의 역사는 일제 치하인 1924년 10월 평남에 진천양조상회(眞泉釀造商會)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오늘날 소주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진로(眞露)’는 1954년 6월 서광주조(西光酒造(株))를 발족시키면서 탄생하였다. 이후 30년 이상 국내시장 1위를 유지하는 한편 1984년 10월에는 경기도 이천에 단일주류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류종합단지를 완공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 10월에는 국내 최초의 대나무숯 여과 소주인 “참진 이슬로”를 출시하여 7년 7개월 만에 100억병을 판매하는 대기록과 함께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전 세계 증류주 시장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에는 국내 최고의 주류업체인 하이트맥주와 한 가족이 되어 글로벌 주류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안전의식의 변화로 안전문화 정착에 힘쓸 터

1984년에 완공된 이천공장은 단일주류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의 조현철공장장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항상 강조한다.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은 모든 현장에서의 중대한 과제이다.

과거의 안전관리 방법이 수직적 명령하달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포상제도의 적극적 활용으로 자율적 안전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월



레희의를 통해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안전의식에 대한 강화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안전정책으로 “내 집같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장을 구축하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 핵심이 되는 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친환경경영 대원칙하에, 첫째 무재해·무직업병 공장실현, 둘째 쾌적한 근무환경개선, 셋째 환경친화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정, 안전관리지침제정 등을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전문화를 튼튼히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 제조공정에서의 위험과 그 대책

이곳 이천공장의 소주제조 공정은 크게 양조공정과 병입·포장공정으로 나뉘어 진다. 양조공정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알코올은 그 순도가 95%에 달하고 이를 대나무 숲에 3번, 은이 함유된 대나무 숲에 한 번 더 거른 지하수로 희석한 후, 정밀여과기로 잡미 및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 소비자가 마시는 부드럽고 깨끗한 소주가 탄생된다.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95%의 알코올은 인화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PSM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화재 및 폭발사고는 물론 알코올 누출로 인한 사고가 유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PSM T.F.T를 별도로 구성하여 공정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단계까지 안전성확보를 위해 공



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하여 나가고 있다.

병입·포장공정은 자동화 설비 및 컨베이어로 구성되어 있어 회전체가 많아 협착의 위험과 병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및 깨진 병조각에 의한 창상·자상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05년 말 안전백서를 제작하고 각 부서에 비치하여 안전작업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 기본과 원칙에 실현, “안전지킴이”, “안전마일리지제도”

2005년 5월부터 시작된 안전지킴이 제도는 각 분임조 조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간 자신의 작업구역을 순찰하며 설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불안정한 요소들을 발굴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 제작한 안전지킴이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지도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한 달에 한건 이상의 불안전요소의 발굴과 더불어 계절별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위험에 대한 공통임무가 부여된다. 안전지킴이를 하는 한 달 동안 관리자적 위치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안전의식이 향상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또한 2001년부터 안전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여 무재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각 개인별로 마일리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분임조별로 축적되고 있어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각 공정별 위험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축적 방법을 달리하는 등 형평성도 고려하여 매년 연말에 무재해 마일리지 성과에 따

라 분임조별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 세심한 근로자의 건강 지키기

최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을 위해 설비의 많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설비개선에만 투자된 예산이 10억이 넘는다. 또 건강 검진을 통해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이나 개인질환의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하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거쳐 기존의 작업패턴과 전혀 다른 작업패턴의 부서를 이동시켜 줌으로써 건강 악화를 막고 빠른 회복을 위해 전사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의 힘찬 도약을 위한 초석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로 이천공장, 우리나라 대표 안전기업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임재근 기자〉